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

오명희* · 장윤옥**1)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Difference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by Family Strengths and Parent's Expectation Styles

Oh, Myeong-Hee* · Jang, Yoon-Ok**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which is composed of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and extrinsic learning motivation, by family strengths and parent's expectation style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508 students who were selected at random from second, and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in Daegu. Factor analysis and MANOVA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and Scheff test for post - hoc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rning motiv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s. More specifically,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family strengths to be high had higher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than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family strengths to be middle and low.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tyles.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tyles paternal support-maternal support, paternal pressure-maternal support, and paternal support-maternal pressure showed higher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than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tyles paternal pressure-maternal pressure.

1) 교신저자: Jang yoon-ok, 1370 Sankyuk 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Tel: 053-950-5928 Fax: 053-950-5924 Email: yojang@mail.knu.ac.kr.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tyles and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s. In adolescents group who perceived their family strengths to be low,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the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tyles to be paternal support-maternal support, paternal pressure-maternal support and paternal support-maternal pressure had higher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than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the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tyles to be paternal pressure-maternal pressure.

Key word: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부모의 학업기대(parent's academic expectation), 내적학습동기(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외적학습동기(extrinsic learning motivation)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행동이나 성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업과제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긍정적인 학습동기를 전제로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업행동 없이는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가 활용하려고 하는 학습동기가 없으면 적극적인 학업행동이나 높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자녀들의 동기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학업성취를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이 유발된다(임은미, 1998).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학습동기를 잘 유발한다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수업현장에서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율적인 학업 활동을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내적동기를 높일 수 있

고(임은미, 1998),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학습동기가 높다(김정옥, 1999)라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은 학습동기가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학교학습을 위한 조력조건이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자극과 조건을 잘 조성하고 있을수록, 가족구성원이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에서 일체감을 갖는 정도가 크고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학업성적, 학습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지선, 2005)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서적인 발달 및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은 일차적으로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학습동기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족건강성(유영주, 1999)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자녀 중심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개방적 가정의 자녀가 부모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가정에 비해 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으며(박성주, 1986),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학습동기가 높다(손희준, 1987)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가족건강성에 따라 청소년의 학습동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에 따라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교육기대 수준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기

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과 바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로 나타나고,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학습동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지적 성취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구본선, 2004).

자녀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확신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자녀의 일 처리 능력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유안진·김연진, 1987) 반면에 자녀의 능력이나 개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야망을 갖게 하여 부모의 기대만큼 성취할 수 없을 경우 자녀는 강한 실망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실망은 자기존중감, 성취의욕과 추진력을 말살시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안정애, 1988). 이처럼 부모의 기대에 따라 자녀의 학습태도와 성취동기, 학업성취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권현자, 1988)고 한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지지기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시험불안과 부담감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는 오히려 낮아지며(이재구, 2000), 부모의 학업압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학습동기는 저하된다(박순희, 1996)고 한다. 이들 선행연구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과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동기를 관련지어 볼 때,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수준 뿐만 아니라 학업기대유형에 따라서 자녀의 학습동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은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양육태도와 학습참여형태, 그리고 가정환경 및 가족상호작용 유형 등과 같은 부모관련 변인들과 학습동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부모관련 변인들 중 부모의 학업기대와 같은 변인들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모의 학업기대와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들도 부모의 학업기대유형보다는 주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학업기대수준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수준이나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 각각의 기대수준이나 유형을 분류하여 연구하거나, 부·모의 기대수준이나 유형을 동시에 조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구체적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 양호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부모들의 자녀가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며(김경근, 1996) 성취, 개방, 자율을 강조하는 가정환경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더 높다(정호숙, 1998)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족건강성에 따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이 다를 수 있고, 이들에 따라 청소년의 학습동기나 학업성취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 각각의 변인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만을 알아보는 것보다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따른 각각의 부·모 학업기대유형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 영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정도와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건강성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정도와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습동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가족이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유영주, 2002).

2) 부모의 학업기대(parent' s expectations of academic)

부모가 학업에서 자녀가 성취했거나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가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말한다(신향숙, 2000).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지지기대유형과 압박기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지지기대유형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Campbell, 1994)으로, 부모의 태도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격려해 주는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업기대유형을 의미한다(김현정, 1997).

(2) 압박기대유형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인 통제나 행동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압박기대는 성취압력이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과잉 관심으로 학습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효과에 따른 칭찬과 비난, 상, 벌,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거칠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학업기대유형을 말한다(김중범, 1995).

3)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

학습자가 의미있고 가치있는 학업적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학업적 활동으로부터 의도한 학업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을 말한다(박준희, 1994).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를 그것이 어떻게 유발되었느냐에 따라 내적학습동기와 외적학습동기로 분류하였다.

(1) 내적학습동기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그들 자신의 안정, 만족감, 성취감, 자아존중감의 고양 및 자기보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주어진 학습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의욕과 신념을 말한다(김용래, 1993).

(2) 외적학습동기

학습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좋은 성적, 상, 벌, 칭찬 등과 같은 보상을 위해 과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외부적으로 유도된 동기를 의미한다(김용래, 199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학습동기

동기(motive)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시작하도록

록 하고 그 행동을 활성화시키며, 그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정행동을 지속시켜 나가는 내적인 상태(이성진, 1996)를 말한다. 또한 이 내적 상태를 어떤 학습조건인 자극에 의하여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동기유발이라고 한다. 학습에 있어서 동기유발은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게 하고 정력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가게 이끄는 것(박영도, 2005)을 말한다.

학습동기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내적동기는 호기심, 흥미, 욕구 등의 내적요인이 학습활동의 동기가 되어 학습자가 학습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학습에 참여하는 상태로, 이 때의 보상은 학습에 대한 만족감, 성공감, 성취에 대한 자부심, 자아존중감의 고양 등의 형태로 학습활동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Deci, 1987). 반면에 외적동기는 보상을 받고, 벌을 피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혹은 과제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 하기도 하는 외재적으로 유발된 동기이다. 이는 활동 그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것이 가져다 줄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정종진, 1996)을 말한다.

유영숙(2002)은 내적동기가 외적동기에 비해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적동기를 향상시키면 아동의 학습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면서, 내적동기를 유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경아(1997)도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갖게 하는 내적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적동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조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외적동기 또한 학습자의 내적인 마음에서의 의욕이 작용해야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는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다(김경아, 1997).

학습수행 및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동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자의 목적과 신념,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반응이며(김병옥, 2004),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에 따라서 학습의욕과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임승권, 1993) 교

사는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김지은, 2000).

또 학습동기는 학습의 출발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학습의 원인제공이 됨과 동시에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며(심윤영, 2006), 학습동기의 하위영역인 목표지향, 성취가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키고 학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적인 힘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경자, 2006)고 한다.

2.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1962년 미국의 가족학자 Otto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임정아, 2005).

Otto(1962)는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북돋우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Olson과 DeFrain(2003)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정의한다.

유영주(2001)는 건강한 가족을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도덕적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 기술·의사결정과정·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올바르게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한 권대희(2003)는 가족원간의 유대가 좋을수록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할수록, 그리고 가족공동의 가치관과 규칙을 가지고 있을수록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가족건강성이 높으며, 청소년들이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다고 한다.

또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

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윤세은(2000)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게 나타나므로 청소년기 자녀의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의 사회·심리적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가족에 대해 배려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족관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은 가족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특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미연(1989)은 가정환경이 학교환경보다 학업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박지선(2005)은 가정환경 중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 분위기가 학업성적에 거의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정 분위기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업성적이나 학습동기는 가정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상호작용 유형이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김정옥(1999)은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 상호간의 지지와 인정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더 높게 형성된다고 보고하면서, 부모의 지지와 인정이 자녀의 학습동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녀의 더 높은 학습동기 형성을 위해서 부모는 가정생활 상태나 가족들의 태도가 청소년의 자신감을 충분히 제공하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부모가 학구적 성취지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업성적은 향상된다(정호숙, 1998)는 연구결과, 그리고 가정환경의 하위영역 중 집단성격에 해당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기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가정의 응결력 등과 같은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심정애, 2005)는 연구결과들은 가정의 응결력이 좋고, 부모-자녀 간에 신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과 같은 조화로운 가정환경, 즉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적이나 학습동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서로 신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동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을 지지해주고 강화시키는 환경인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부모의 학업기대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며 부모의 기대 속에서 성장해 간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통제력과 영향력을 가하며 여러 가지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모의 요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구본선, 2004).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김영주(1998)는 우리나라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고 하면서,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의 능력, 가치, 성격 특성들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지만 자녀의 능력이나 흥미 등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기대를 하여 자녀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부모가 아동의 능력이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다투기를 잘하고, 무책임하게 되는 등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자녀의 발달에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구본선, 2004).

Ketsetzis 등(1998)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압박기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청소년의 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압박기대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자존적 문제해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자녀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며, 자녀의 일처리 능력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하고 긍정적인 기대와 행동은 자녀의 수행적 사고 즉, 인지적 능력의 수

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안진·김연진, 1987)고 하는 연구결과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의 학업기대 또한 중요함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성취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경우에 자녀의 성취동기는 더 높게 형성되고(김현숙, 1995; 이승아, 1993),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동의 부모는 부진한 아동의 부모보다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높은 경향이 있고(조수영, 1980),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학업활동을 격려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내적학습동기가 높다(윤인숙, 2004)고 한다.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부모의 기대지각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영선(1999)도 부모기대 지각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Campbell(1994)은 자녀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더 높은 학업성취를 바라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부담감을 증가시켜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킨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높은 성취를 바라는 가족분위기에서, 특히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청소년들은 더 불안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결국 학업성취는 저조해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학업기대유형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해 연구한 이재구(2000)도 어머니의 압박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가 낮을수록, 아버지의 압박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박순희(1996)도 부모의 학업압력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의 학습동기는 저하된다고 한다.

이처럼 부모의 학업기대와 성취압력이 자녀들의 학업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녀들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자녀의 지적능력 이상의 성취를 강요하거나 부모의 일방적인 기대수준으로 자녀를 대하는 경우 자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본선, 2004)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업기대, 학업압력 등은 학습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학습동기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은 학업

성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의 학습동기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유형의 학업기대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자녀의 내·외적학습동기 및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4.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우리나라에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강가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주된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과 부모기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상층이면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석사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이들 중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가 높은 학업성취에도 달할 수 있도록 양호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김경근, 1996)고 한다.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으면서 성취, 개방, 자율을 강조하는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난다(정호숙, 1998)고 한다. 부모의 기대나 가치구별이 청소년 자녀와 일치할수록 서로 협동적인 체계를 가질수록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에 상호신뢰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이재구, 2000),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성 등이 좋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심정애, 2005)고 한다. 이처럼 가정환경이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주미연, 1989) 학업성취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가정환경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김정옥, 1999)는 것이다.

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학업기대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자녀의 학업성취나 학습동기는 단순히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신뢰감, 유대감,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내는 가족건강성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학업기대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환경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가질수록, 그리고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한 가정환경일수록 부모의 학업기대를 청소년 자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나아가 학업성취와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가족건강성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2·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3월 26일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내용	인원(%)	변수	내용	인원(%)
학생의 성별	남	232(45.7)	생활수준	상	29(5.7)
	여	276(54.3)		중상	142(28.0)
학생의 출생순위	만이	241(47.4)		중	272(53.5)
	중간	40(7.9)		중하	52(10.2)
	막내	197(38.8)		하	13(2.6)
	외동	30(5.9)			
어머니의 연령	30-39세	134(26.4)	아버지의 연령	30-39세	27(5.3)
	40-49세	365(71.9)		40-49세	446(87.8)
	50세 이상	6(1.2)		50세 이상	33(6.5)
	무응답	3(0.6)		무응답	2(0.4)
어머니의 학력	초등학교 이하	4(0.8)	아버지의 학력	초등학교 이하	8(1.6)
	중졸	34(6.7)		중졸	26(5.1)
	고졸	295(58.1)		고졸	234(46.1)
	전문대·대졸	156(30.7)		전문대·대졸	209(41.1)
	대학원졸 이상	16(3.1)		대학원졸 이상	28(5.5)
	무응답	3(0.6)		무응답	3(0.6)
어머니의 직업	농림어업자	4(0.8)	아버지의 직업	농림어업자	9(1.8)
	자영업	128(25.2)		자영업	233(45.9)
	임시직	13(2.6)		임시직	14(2.8)
	생산직	18(3.5)		생산직	54(10.6)
	사무직	58(11.4)		사무직	100(19.7)
	행정 관리직	4(0.8)		행정 관리직	41(8.1)
	전문직	32(6.3)		전문직	29(5.7)
	무직/전업주부	230(45.3)		무직/전업주부	6(1.2)
	기타	17(3.3)		기타	20(3.9)
	무응답	4(0.8)		무응답	2(0.4)
계	508(100)	계	508(100)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2007년 3월 31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걸쳐 대구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6개 중학교의 남·녀 학생 62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를 방문하여 질문지의 내용 및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담당 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595부였으며, 이 중 부실기재 되었거나 편부·편모 가정의 학생이 기입한 질문지를 제외한 50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가족건강성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는 총 68문항으로 구성된 유영주(2004)의 척도를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97이었다.

2) 학업기대 척도

학업기대 척도는 Campbell(1994)의 Inventory of Parental Influence(IPI)를 번안·수정하고, 이 척도를 사용한 구분선(2004), 이재구(2000)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압박기대에 관한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기대가 지지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과잉 관심으로 학습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효과에 따른 칭찬과 비난, 상, 벌,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거칠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뜻하므로 압박기대(12문항)로, 요인 2는 부모의 태도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격려해 주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하므로 지지기대(12문항)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 압박기대 요인이 .83, 아버지 지지기대 요인이 .84, 어머니 압박기대 요인이 .82, 어머니 지지기대 요인이 .83이었다.

3) 학습동기 척도

학습동기 척도는 Pintrich와 De Groot(1990)가 제작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와 Amabile, Hill, Hennessey & Tighe(1994) 등이 개발한 WPI(The Work Preference Inventory)를 번안·수정하고, 이 척도를 사용한 김경아(1997), 김병옥(2004), 김지은(2000), 민혜영(1999), 박재순(2002), 윤인숙(2004), 현혜경(1997)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37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이거나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6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31문항을 청소년의 학습동기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그들 자신의 안정, 만족감, 성취감, 자아존중감의 고양 및 자기보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주어진 학습과 관련된 제반 활동과 과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의욕과 신념을 뜻하는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적학습동기(20문항)로, 요인 2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좋은 성적, 상, 별, 칭찬 등과 같은 보상을 위해 과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외부적으로 유도된 동기를 뜻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적학습동기(11문항)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내적학습동기 요인이 .92, 외적학습동기 요인이 .74이었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부모 학업기대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우선,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점수를 이용하여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가족건강성 점수가 높은 상위 33% 청소년을 상 집단(M=3.90, SD= .32)으로, 가족건강성 점수가 낮은 하위 33% 청소년을 하 집단(M=2.61, SD= .36)으로, 그 나머지는 중 집단(M=3.22, SD= .13)으로 분류하였다.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F=12.848, p<.0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건강성에 따라 청소년 학습동기의 하위변인인 내적학습동기와 외적학습동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에 따라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와 외적학습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다

<표 2>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건강성	.904	12.848	4.000	990.000	.000

<표 3>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결과

가족건강성(N)	학습동기	내적학습동기		외적학습동기	
		M	SD	M	SD
상 (176)		3.54 a	.54	3.07 a	.56
중 (176)		3.03 b	.53	2.86 b	.47
하 (156)		2.84 c	.71	2.73 b	.67
F값		24.718***		7.896***	

***p < .001

※ a, b, c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N=508)

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가족건강성을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이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거나 중간 정도로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외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신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들의 부모 또한 자녀에게 학구적 성취지향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가족건강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내·외적학습동기가 높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상호간의 지지와 인정은 높은 성취동기를 형성하며(김정옥, 1999),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가정의 응집성 등이 좋을수록 학습동기가 높다(심정애, 2005)는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자녀 간에 신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부모가 학구적 성취지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자녀들의 학업성적은 향상될 것이라(정호숙, 1998)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내·외적학습동기는 일차적 환경인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 즉 부모의 역할이나 가

족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며, 가족전체 상호간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2.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우선, 부·모 각각의 학업기대유형은 학업기대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평균(부: M=3.23, 모: M=3.21)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 지지기대유형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 압박기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학업기대유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검증을 한 결과, 부·모 각각의 학업기대유형을 지지기대유형과 압박기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F=5.177, p<.0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따라 청소년 학습동기의 하위변인인 내적학습동기와 외적학습동기에 어떤 차이가

<표 4>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부모의 학업기대유형	.940	5.177	6.000	999.000	.000

<표 5>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결과

(N=508)

부모의 학업기대유형(N)	학습동기		외적학습동기	
	M	SD	M	SD
부 지지 - 모 지지 (170)	3.39 a	.62	2.93	.54
부 압박 - 모 지지 (58)	3.27 a	.55	2.95	.56
부 지지 - 모 압박 (71)	3.26 a	.57	3.01	.59
부 압박 - 모 압박 (209)	2.88 b	.66	2.81	.61
F값	8.121***		.860	

***p < .0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부지지 - 모 지지, 부 압박 - 모 지지, 부 지지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부 압박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학습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 모두 학업에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가 부모 모두 압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내적학습동기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압박이 높은 학업기대유형을 가질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진다는 이재구(2000)의 연구결과,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 학업동기가 높으며, 부모로부터의 지지박탈은 자기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손희준(1987)의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하겠다.

즉 부모 모두로부터 혹은 부모 어느 한쪽으로부터라도 지지적인 학업기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 중 한쪽이 학업에 대해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자신감과 성취감이 저하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라도 다른 한쪽 부모의 지지적인 학업기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쇄될 수 있다. 또 부모의 지지적인 학업기대는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지만, 부모 모두가 학업에 대해 압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압박적인 학업기대로부터 그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지지와 대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자아존중감의 저하, 그리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의 감소 등과 같은 내적학습동기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취동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성취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

하거나(임은미, 1998) 정서적으로 관여한다(김현숙, 1995)고 자녀가 지각하는 경우에 높게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들, 성적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자녀가 생각할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진다(한희영, 2005)는 연구결과, 부모가 자녀의 능력과 소질에 동떨어진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 자녀는 다투기를 잘하며 무책임해진다(안정애, 1988)고 한 연구결과들이 잘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한편,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외적학습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외적 보상에 의해 유발된 학습동기보다는 학습자의 호기심, 흥미, 탐색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학습동기가 더 중요하고, 내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학습동기야말로 학습과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강도를 높여주게 되므로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유효현(2001)의 연구결과, 내적동기가 외적동기에 비해 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내적동기를 향상시키면 아동의 학습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며, 내적동기를 유발시킬 것을 주장한 유영숙(2002)의 연구결과로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내적학습동기보다는 외적학습동기가 일시적이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업기대유형을 가진 부모이든 청소년의 외적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유사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외현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학습기대유형 자체는 내적학습동기보다는 외적학습동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외적학습동기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부모 모두 자녀의 학업에 대해 지지적 기대를 하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지지적 기대를 하는 경우가 부모 모두 압박적 기대를 하는 경우보다 내적학습동기를 더 높일 수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포부와 기대 수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비민주적인 학업 압력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전세남, 1989)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의 능력이나 욕구 또는 개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기대하거나 학습에 대해 간섭을 하여 자녀의 성취동기를 억제시키고, 자녀의 학습

의욕으로 연결되는 자신감과 지적 호기심 등의 욕구 등과 같은 내적학습동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 격려 및 지지를 보내며 자녀에게 적절한 학업기대를 한다면 자녀의 학습동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가족건강성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이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는 통계적으로(F=2.276, p<.01)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따라 청소년 학습동기의 하위변인인 내적학습동기와 외적학습동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습동기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외적학습동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

<표 6>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건강성 * 부모의 학업기대유형	.947	2.276	12.000	990.000	.008

<표 7>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에 대한 단변량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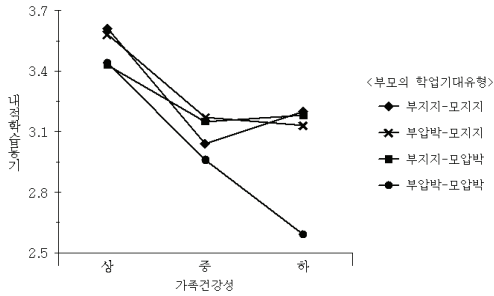
(N=508)

가족 건강성(N)	학업기대유형(N)	학습동기		외적학습동기	
		M	SD	M	SD
상 (176)	부 지지 - 모 지지 (99)	3.61	.53	3.02	.51
	부 압박 - 모 지지 (16)	3.58	.38	2.90	.40
	부 지지 - 모 압박 (26)	3.43	.43	3.20	.56
	부 압박 - 모 압박 (35)	3.44	.66	3.21	.71
중 (176)	부 지지 - 모 지지 (49)	3.04	.59	2.81	.48
	부 압박 - 모 지지 (20)	3.17	.56	3.07	.55
	부 압박 - 모 압박 (84)	2.96	.46	2.81	.44
하 (156)	부 지지 - 모 지지 (22)	3.20 a	.68	2.78	.75
	부 압박 - 모 지지 (22)	3.13 a	.58	2.87	.66
	부 지지 - 모 압박 (22)	3.18 a	.63	2.81	.70
	부 압박 - 모 압박 (90)	2.59 b	.67	2.66	.65
F값		2.879***		1.471	

***p < .0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게 나타난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부모 학업기대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내적학습동기의 차이

[그림 1]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그리고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부 지지 - 모 지지, 부 압박 - 모 지지, 부 지지 - 모 압박 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부 압박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내적학습동기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어떤 학업기대유형을 갖는가에 관계없이 내적학습동기가 가장 높고, 가족건강성을 중간 정도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어떤 학업기대유형을 갖는가에 관계없이 중간 수준의 내적학습동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부모가 갖는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내적학습동기의 수준이 다른데 이들 중 부모 모두 학업에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가 부모 모두가 압박기대를 한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내적학습동기보다 더 높으며, 가족건강성을 중간 정도라고 지각한 청소년들과 내적학습동기 수준

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낮다고 지각하고, 부모 모두 자신에게 압박기대를 한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내적학습동기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않고,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외감을 느끼는 등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상태일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환경하에서 부모 모두가 학업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고 느낄 때, 청소년은 그러한 부모의 학업기대를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압박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간섭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학습동기가 저하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도 높아지며, 청소년들의 내적학습동기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보다는 가족건강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신뢰롭고 가족체계가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학업기대 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 단순히 자녀가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 양호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또 자녀에게 상을 주거나 물질적 보상을 하는 외적학습동기를 유발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주의력, 도전감, 호기심, 성취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함양 등과 같은 내적학습동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며,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여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족건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녀가 학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태도와 자녀에게 적절하면서 지지적인 학업기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내·외적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2, 3학년 508명이고,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그리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é 검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와 외적 학습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가족건강성을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이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거나 중간 정도로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외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며 가족전체 상호간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부 지지 - 모 지지, 부 압박 - 모 지지, 부 지지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부 압박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모두 자녀의 학업에 대해 지지적 기대를 하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지지적 기대를 하는 경우가 부모 모두 압박적 기대를 하는 경우보다 내적학습동기를 더 높일 수 있으므로,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 격려 및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가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을 높게, 그리고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부 지지 - 모 지지, 부 압박 - 모 지지, 부 지지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부 압박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개개인의 성장발달 및 자율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족의 공동육구를 충족시켜 가족건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지나친 학업기대를 지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자녀의 능력이나 욕구 또는 개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기대하고 학습에 대해 간섭을 하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성취동기를 억제하게 되고, 따라서 자녀의 학습의욕으로 연결되는 자신감과 지적 호기심 등과 같은 내적학습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녀의 자발적인 학습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칭찬, 격려와 같은 지지적인 부모의 학업기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학업기대는 자녀에게 자칫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학업기대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자녀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녀 간에 신뢰감을 형성하고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등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며,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여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족건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녀가 학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태도를 가진다면 청소년의 내·외적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기대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는 학업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업기대유형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학업기대유형을 조사하여 자녀와 부모가 지각하는 학업기대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자녀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부모기대유형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제 가족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구본선(2004). **부모의 학업기대에 대한 초등학생의 지각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대희(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현자(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근(1996). **한국 중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교육문제연구, 8, 83 -103.
 김경아(1997). **내외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학습자의 학습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옥(2004).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이 아동의 학습동기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선(1999).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 부모의 기대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1998). **어머니 및 아동의 기대수준과 아동의 귀인성향과의 관계**. 아동교육, 7(2), 204-216.
 김용래(1993). **정의적 특성과 그 선행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9, 123-125.
 김정옥(1999). **가족상호작용 유형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범(1995).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 및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은(2000).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이 아동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1995). **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부모의 기대수준과 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1997).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시험불안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혜영(1999). **부모의 상과 벌이 아동의 학업에 대한 내·외적 동기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주(1986). **한국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희(1996). **부모의 학업압력이 학업동기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도(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양육태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순(2002). **학습습관 향상프로그램이 고교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희(1994).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선(2005).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가정환경, 사교육, 학습태도)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북구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희준(1987).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향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윤영(2006). **현실요법 집단 상담이 초등학교생의 내적통제성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정애(200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애(1988). **모의 기대수준과 실제지도에 따른 자녀의 자아개념**.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김연진(1987).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 유영숙(2002). **학업성취동기 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태도, 학업성취 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99). **건강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 _____(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_____(2002). **건강가족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생활과학논집*, 6(1), 1-24.
- _____(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효현(2001).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용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 관계 -서울시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숙(2004). **부모의 학습참여 형태와 자녀의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2006).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동기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1996).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승아(1993). **내·외 통제소재 및 가정환경변인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구(2000). **부모의 학업기대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승권(1993). **교육의 심리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정아(2005).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용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1996). **학교학습과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 정호숙(1998). **부모의 교육적 태도와 시험불안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영(1980). **학업성적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미연(1989).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희영(2005). **중학생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각 변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혜경(1997). **내·외동기와 학업성적이 학업성취기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mpbell, J. R.(1994). **Developing cross-cultural/cross-national instruments: Using cross-national methods and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675-684.
- Deci, E. L.(1987).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reinforcement, and in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474-482.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1998).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74-387.
- Olson, D. & Defrain, J.(2003). *Marriage and families: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Otto, H. A.(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3.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2, 3학년 508명이고,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MANOVA, 그리고 사후검증법으로 Scheffé 검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에 따른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와 외적학습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가족건강성을 중간 정도로 지각한 청소년들이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한 청소년들보다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거나 중간 정도로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외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부 지지 - 모 지지, 부 압박 - 모 지지, 부 지지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부 압박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학습동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내적학습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을 높게, 그리고 중간정도로 지각한 청소년 집단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내적학습동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 집단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부 지지 - 모 지지, 부 압박 - 모 지지, 부 지지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부 압박 - 모 압박기대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내적학습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6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1월 2일